

해외불자들 팟캐스트로 불교배운다

해외 방송 수 최소 1000여 가지 넘어

국내 스마트폰 사용자 수가 2700만 명에 육박하면서 '나는 폼수다'와 같이 팟캐스트의 영향력도 같이 커지고 있다. 이런 가운데 해외에서도 불교를 소재로 팟캐스트 방송을 펼치고 있어 눈길을 끈다.

아이튠즈에 들어가 'buddhist' 'buddha' 'meditation' 'zen' 등 불교관련 단어를 영어로 검색하면 최소 1000여 가지 이상의 팟캐스트가 뜬다. 명상, 요가, 힐링과 관련한 주제들이 대다수이고 티베트·중국·일본 불교에 대한 개론과 이해 등 다양한 방송들이 진행되고 있다. 팟캐스트 리뷰 등록 수를 기준으로 가장 많이 리뷰 댓글이 달린 팟캐스트들을 소개한다.

이나는 기자 oasis1983@hyunbul.com

◇ 팟캐스트 '법문, 불자토론, 명상안내' 등 인기 팟캐스트(Zencast)

젠캐스트는 주간 방송으로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법문을 펼친다. 400회를 앞두고 있는 이 방송에서는 선(Zen), 불교(Buddhism), 승가(Sangha), 마음챙김(mindfulness), 자비(Compassion) 등을 키워드로 방송을 하고 있다.

청취자들이 "최고의 방송이다. 매주 놓치지 않고 듣는다" "만약 팟캐스트로 당신의 삶을 한단계 높이고 싶다면 젠캐스트를 들어라"는 등의 후기를 남길 정도로 인기가 많다.

불교 괴짜(Buddhist Geeks)

기술발전, 철학, 교육, 비즈니스, 정치 등 다양한 문화 현상과 불교가 서로 교차하는 측면에서 각 분야별 프로 전문가들이 실험적 불교 탐색을 시도하는 회의를 갖는 불교 괴짜 컨퍼런스(Buddhist Geeks Conference)에서 매주 진행되는 방송이다. 260회째를 진행하고 있는 불교 괴짜 방송에서는 매주 불자교사, 철학자, 수행자 등을 초청해 토론을 하면서 현대 문명과 불교의 접합점 찾기를 모색하고 있다.

청취자들은 "이 방송을 1년째 듣고 있다. 평범하지만 불자들간의 대화는 매우 흥미롭다" "토론들은 항상 재밌고 나의 생각을 트이게 한다"고 평가를 남겼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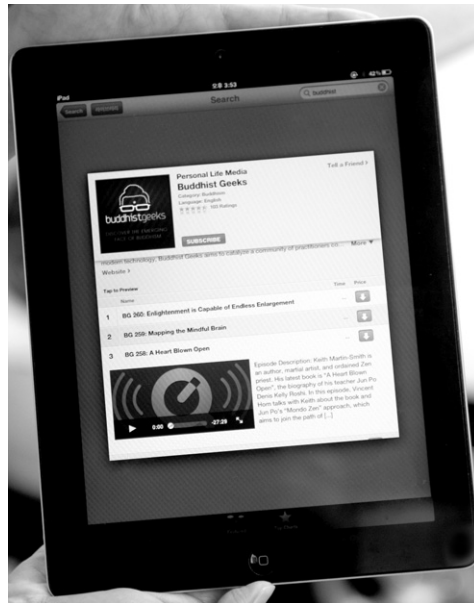
Be Still & Know(명상-스트레스와 병 극복하기)

Be Still & Know(잔잔하게 그리고 알아차리기) 방송은 명상을 통해 스트레스와 병을 극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45년간 명상을 해온 로이 마스터(Roy Master)가 진행하는 이 방송에서는 폭력, 분노, 중독, 조울증, 자기회피에 빠진 청취자들을 위한 명상안내를 하고 있다.

그 밖의 방송들

- 대중 불자(The Secular Buddhist)

이 방송은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초기불교를 가르치고 일상에서 수행할 수 있는 요소들을 짚어서 방송하고 있다.



아이튠즈에 들어가 'buddhist' 'buddha' 'meditation' 'zen' 등 불교관련 단어를 영어로 검색하면 최소 1000여 가지 이상의 팟캐스트가 뜬다.



- 상호의존 프로젝트: 21세기 불교(The interdependence Project: 21st Century Buddhism) 주간 방송으로 해외에서 유명한 법사, 대학교수, 등을 초청해 법문과 불교교리를 전하고 있다.

◇ 아이튠즈 유·해외에 강좌 들을 수 있어

아이튠즈 유(iTunes U)에서 'buddhism' 'meditation' 등을 치면 최소 200여 개가 넘는 강좌

들이 뜬다. 특히 명상강좌들이 인기다. 미국 명문대학인 UCLA, 스탠포드, UC버클리, 듀크, 뉴햄프셔 등과 영국 옥스퍼드 등에서 알아차림(mindfulness) 명상을 비롯한 다양한 명상요법에 대한 강의 내용을 제공 하고 있다. 또한 달라이 라마, 탁났한의 법문과 티베트·부탄·한국·중국·일본 불교역사 및 불교 미술과 해당국가의 역사에 대한 강의 콘텐츠들도 다 운받아 볼 수 있다.

※ 팟캐스트란?

아이팟(i-pod)과 방송(Broadcasting)을 결합해 만든 신조어로, 스마트폰 사용자에게 오디오 파일 또는 비디오 파일 형태로 뉴스나 드라마, 각종 콘텐츠를 제공하는 것을 말한다.

최근 애플은 아이튠즈(iTunes)와 음악 응용프로그램(앱)에서 팟캐스트만 태어난 앱을 6월에 내었다.

애플 앱스토어에서 '팟캐스트' 또는 'podcast'를 검색해 내려받아 아이폰, 아이패드, 아이패드에서 깔면된다. 해외 불교 및 명상관련 팟캐스트를 들으려면 앱스토어 해외 계정이 있어야 하며 미국으로 설정하는 것이 좋다.

※ 아이튠즈 유(iTunes U)란?

아이튠즈 유는 애플의 교육용 서비스로 해외의 유명한 강좌를 다운받아 들을 수 있다. U는 University의 약자이며 해외 명문대학, 박물관, 문화교육기관 등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종류(인문학, 사회학, 과학 등)의 강좌와 토론, 어학수업 및 자기계발을 위한 콘텐츠를 접할 수가 있다.

壬辰年은 龍의 해입니다.
해동용궁사에 오셔서
소원성취하십시오.

한 가지 소원을 꼭 이루는 해동용궁사
☎ 051) 722-7755

에스토니아 스님, "英-中 佛백과사전 만들것"

에스토니아 출신 스님이 온라인 불교 백과사전을 구축하기 위해 대만을 방문했다.

대만 언론인 포커스 타이완(Focus Taiwan)은 현지 시각으로 7월 1일 "에스토니아 스님이 '대만은 풍부한 불교 자원을 가진 나라'라며 온라인 영어-중국어 불교 백과사전 구축과 관련한 정보를 얻기 위해 대만을 방문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에스토니아에서 최초의 불교 수도원을 건설한 벨로 바트누(Vello Vaartnou·사진) "대만은 풍부한 불교 자원과 불교 텍스트를 갖고 있다. 백과사전 프로젝트를 위해 중대한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중국도 방대한 양의 불교 자료를 갖고 있지만 대만도 그 못지 않다"고 말했다.

소련에서 독립된 후 1988년 에스토니아 독립 정당



을 설립해 뉴캐슬의 한 면을 장식하기도 했던 스님은 "이전에는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두 언어인 영어와 중국어로 백과사전을 만들겠다. 많은 사람들이 무료 웹사이트를 통해 불교에 대한 모든 지식을 얻을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스님은 1988년 에스토니아에서 야당을 설립한 후 1988년 에스토니아에서 퇴출됐다. 이후 불교수행을 위해 네덜, 스웨덴, 호주 및 기타 지역으로 여행을 다녔다. 2005년에는 사원을 짓기 위해 에스토니아로 다시 돌아왔으며 2006년부터 에스토니아와 호주 등 여러 국가에서 국제불교회의를 개최하기도 했다. 이나는 기자

지장보살에 반해 고려불교 공부한 벨기에 학자

세계의 불교학자(24)

셈 베르메르슈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셈 베르메르슈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겸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부소장(Sem Vermersch·44)은 고려불교사를 전공한 인물이다.

벨기에 출신인 베르메르슈 교수는 벨기에 겐트대에서 중국학을 전공하고 1991년 중국 중부 안후이(安徽)성의 구화산(九華山)의 지장보살에 끌려 고려불교에 관심을 가지게 됐다.

구화산을 불교 성지로 만든 지장보살 불상은 신라 성덕왕의 아들로 출가한 김교자 스님(697~794)의 법구를 등신불로 만든 것이었다. 이때부터 그는 한국불교에 관심을 갖기 시작했고, 그러다 우연히 한국인의 집에 방문했다가 한글 서예작품을 보고 단순하면서도 고유한 모양을 지닌 한글에 매료돼 한국과 한국어에 빠지게 됐다. 이후 그는 한국에서 공부할 수 있는 국제장학프로그램을 찾아 서울대 언어교육원에서 한국어를 배우기 시작했다.

한국의 인연을 계기로 베르메르슈 교수는 영국 런던대·아프리카대학(SOAS)에서 고려불교사로 박사 학위를 받았다.

저서로는 <부처의 권력: 고려왕조시대 불교의 정치(2008년)>를 영문판과 조선시대 서원에 관한 책으로 이상해 성균관대 교수가 저술한 <서원>을 영어로 번역한 책이 있다.

2002~2003년 하버드대 박사후과정을 거쳐 2005~2007년 계명대 초빙교수로, 2008년 서울대 종교학과 교수 겸 규장각 국제한국학센터 부소장을 맡고 있는 그는 2010년 미국아시아학회(AAS) 제1회 제임스 팔레 저술상을 수상하기도 했다.

"해외 한국학자들은 연구 분야를 거시적으로 보는 편인데 한국인 학자들은 세부전공 안에 갇혀 역사적 사건을 미시적으로 볼 뿐 큰 흐름은 아우르지 못합니다."

한 인문과의 인터뷰에서 베르메르슈 교수는 한국 불교 전체를 다룬 사례는 전문연구자가 아닌 대중서에서만 볼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고려의 국호가 불교라는 것은 너무 단순한 개념이라고 꼬집었다.

그가 고려불교사 연구를 위해 태조 왕건부터 34대



반영돼 있다는 설명이다. 그렇다면 다양한 사상이 공존한 고려사에서 특별히 불교를 선택해 전공한 이유는 무엇일까. 베르메르슈 교수는 "한국 역사에서 가장 눈에 띄는 건 유교지만 유교는 폐쇄적이고 배타적인 느낌"이라며 "좀 더 개방적이고 친근한 느낌의 불교에 끌렸다. 불화, 고려청자 등 예술작품에도 관심이 많다"고 답한다.

中 구화산 지장보살에 끌려 불교 공부

규장각 국제 한국학센터 부소장 맡아

'고려시대 국교=불교' 단순공식 탈피 주장

<고려도경>영문 번역 중

런던에서 박사과정을 밟을 때 만난 한국인 유학생과 결혼한 그는 "한국은 유럽보다 살기 편리하고 빠르게 발전해서 좋다"며 한국에 대한 애착을 보이기도 한다.

조계종 한국전통사상사 간행위원회 영역자로 참여한 베르메르슈 교수는 현재 12세기 송나라 사신으로 고려에 왔던 서경의 견문록 40권 분량의 <고려도경>을 영어로 번역 중이다.

고려도경의 한글 번역본이 있긴 하지만 주요 용어들은 한자 음(음) 그대로 번역이 돼 있어 이를 적절한 영어로 바꾸는 것이 쉽지 않다.

그래서 그는 "해외에는 한국학을 하는 학생들 중 한 글과 한문을 둘 다 잘하는 사람은 드물어 인재양성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나는 기자